

장근석, 5년 만에 드라마 복귀... 강력계 형사로 종횡무진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꼽히는 장근석은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20만 원을 들고 상경해 외가에서 살았을 정도로 힘들었다.

6세 때 아동복 잡지 모델로 데뷔한 그는 방산고를 나와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KBS2 '요정 컴미', MBC '논스톱4' '황진이' '쾌도 홍길동', SBS '미남이시네요', MBC '베토벤 바이러스', KBS2 '사랑비', SBS '대박'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즐거운 인생' '기다려라 미쳐' '아기와 나' '이태원 살인사건' 등을 넘나들며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9년 드라마 '미남이시네요'로 아시아에 이름 석 자를 각인시켰다. 극 중 까칠하지만 여러 마음과 아픔을 가진 톱스타 황태경 역으로 장근석 신드롬을 일으켰다.

2011년부터는 배우와 가수 활동을 병행



빌딩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

했다. 그해 일본에서 발매한 첫 번째 싱글 앨범 'Let me cry'는 5만 장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며 '오리콘 일일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남성 솔로 데뷔 음

반이 발매 첫 주 1위에 오른 것은 1980년 12월 콘도 마사히코(近藤真彦)이래 30년 4개월 만으로 화제에 올랐다.

이듬해 발매한 정규 1집 'Just Crazy' 또한 발매 일주일 만에 8만8000여 장이 팔리며 엄청난 인기를 이어갔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화권 활약도 눈이 부셨다. 중국 대표 예능 '쾌락대본영' 외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륙에서 인지도를 올렸다. 배우와 가수 둘 다 성공 가도에 올라 '아시아의 프린스'라는 별명을 얻어 한류스타덤에 우뚝 섰다. 이를 증명하듯 2011년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한류스타대상을 받았다.

다방면에서 활약하던 장근석은 2018년 SBS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에서 1인 2역을 맡아 연기했다. 이 드라마는 사극에서 검사로 열연 끝에 톱리코스트한 사도찬이 법구라지들을 화려하게 잡는 통쾌한 사극 활극이다. 검사 백준수와 사기꾼

사도찬 2역으로 스마트함과 능청스러움을 오가는 연기를 펼치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이 드라마 출연을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2018년 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입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뒤 2020년 5월 소집 해제됐다.

장근석이 5년 만에 쿠팡플레이 새 오리지널 시리즈 '미끼'로 복귀한다.

'미끼'는 유사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범인이 사망한 지 8년 후, 그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이를 둘러싼 비밀을 추적하는 범프 스릴러다.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살인과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기 사건 사이를 오가는 독특한 구성과 탄탄한 스토리, 예측 불허의 충격적 전개와 반전, 그리고 주조연 배우들의 빈틈없는 열연이 펼쳐질 쿠팡플레이의 야심작이다.



배우 장근석

뉴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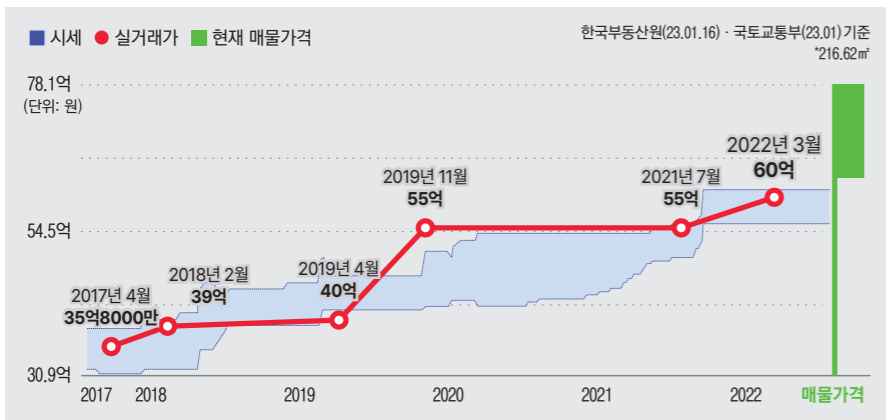
장근석은 강력계 형사 구도한 역을 맡았다. 적당히 세속적이고 현실에 타협하지만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인물로 수사 중인 의문의 살인 사건이 8년 전 죽은 사기

범죄자 노상천(허성태 분)과 연관됨을 알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친다.

'보이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연출을 맡은 김홍선 감독의 신작으로 27일 막을 올린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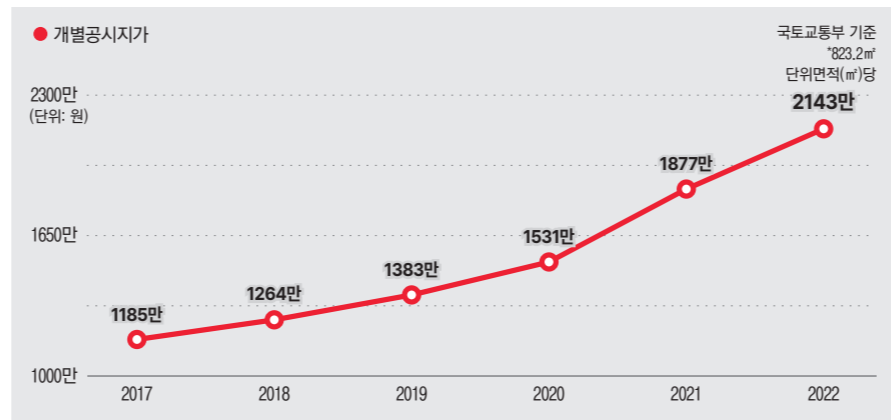
삼성동현대아이파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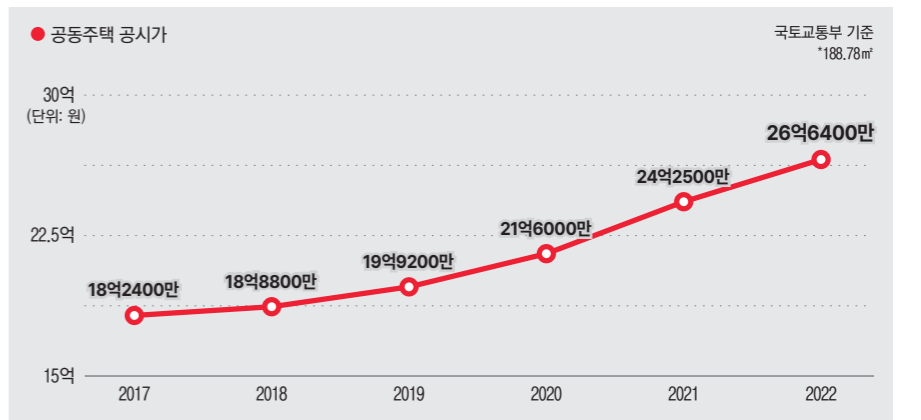
빌딩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



라테라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0-2



이유일

전쌍용자동차 부회장



이유일 전 쌍용자동차 부회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업체와 인연을 맺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총무부장, 캐나다법인 사장, 북미법인 사장, 기획본부장 부사장, 자동차연구소 부사장, 마케팅본부 해외부 및 국내 판매담당 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지냈다. 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입원 자리까지 오른 셀러라엔의 표본을 보여줬다. 1999년 퇴임 뒤 건설업으로 자리를 옮겨 현대산업개발 해외플랜트사업담당 사장과 호텔

아이파크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이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인이 돼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2011년 3월 자동차 전문경영인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쌍용자동차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015년 3월 "이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중대한 시기로 새 인물이 와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며 사임했다.



연대연

현유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장



연대연 유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장은 2세 경영인으로 창업주 엄병운 회장에 이어 유라코퍼레이션을 1999년부터 이끌고 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로 1999년 기아자동차 계열사인 기아전자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업부 인수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생산 제품들을 연간 수백만 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의 반 정도를 차지하며 전장부품 생산의 강자로 올라섰다. 기술개발에도 역량을 쏟아 2009년 국내 최초 자체 개발한

'스마트 전선블록'을 현대차의 YF쏘나타에 탑재해 차량 중량 감소와 연비 향상에 기여했다. 201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을 수상했고 2017년 열린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정재

현배우



이정재는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해 이듬해 KBS 미니시리즈 '노감'과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젊은남자'로 주목받았다. '젊은남자'로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남우상을 휩쓸었다. 1995년 SBS드라마 '모래시계'에서 뛰어난 감도실력으로 여자 주인공 윤혜린(고현정 분)을 지키는 보디가드 백제희를 맡아 국내에 감도 열풍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로 제31회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부문 신인남우상을 거머쥐었다. 이후 영화 '정사' '태양은 없다' '도둑들' '신세계' 관

상 '암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에서 필모그래피를 쌓았으며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감독 데뷔작으로 영화 '헌트'를 흥행시켜 11일 열린 한국영화 시상식에서 '한국 이미지 디딤돌상'을 받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하남, 편리한 교통개선 등 권역별 생활인프라 확충

경기도 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4개 동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중교통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하남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번 대화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미군 반환 공여지 조속 개발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간 단축 및 지원항목 추가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캠프 풀버는 지난해 12월 맺은 국방부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신신도시는 13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선이후 철거' 원칙 준수를 요청하고 하남시-LH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생활인프라 확충의 경우 체육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신장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설이 갖춰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를 올해 상반기 내 준공하고 신장동에 들어서는 종합복지타운 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덕공역은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연계된 역사로 유지하고 주거지역 및 자족용지에 인접한 중부고속도로에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에 LH에 지속적으로 협의요청 한다고 말했다.

위례-감일신도시 주민들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 위한 위례신사선 연장 등 교통 문제 해결 △감일지역 부족한 복지문

화 등 생활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주요 도시철도 거점역을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 작업을 통해 위례지구는 남위례와 북정역, 북위례 마천-거여가라시 장역을 연계하고 감일지구는 올림픽공원-마천-오금역 연계노선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감일신도시 생활인프라 보완의 경우 하남경찰서 감일초소 개소, 심야병원 협약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사강변도시 지역 주민들은 △하남 관내 및 하남-서울구간 버스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GT-X-D 미사지역 유지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하남-서울 구간 버스노선 증차를 검토하고 하남 내 거점역 순환버스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도시철도 5호선 미사역 중심의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연계노선 증차에 나서는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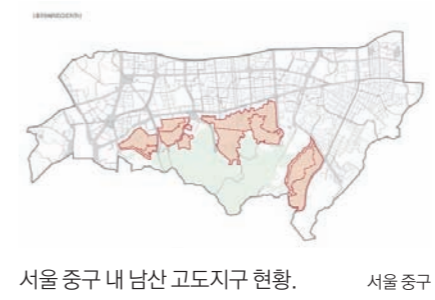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첫 단계로 19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필동-장충동-다산동이 속해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남산 고도제한은 3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했다. 이에 고도지구 내 건물들은 대부분(89%)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서울 중구 내 남산 고도지구 현황. 서울 중구

60%에 달한다. 게다가 같은 도로 또는 사거리에도 고도지구인 탓에 인접 구역과 건축물 높이 차이가 크기에 6배에 이른다거나 노후 주택 개선 목적의 공공사업 공모에서 고려 없이 제외되는 등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구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남산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완화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된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히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고 있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 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2-3중으로 묶여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찾아내 조정한다. 고도지구 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고도제한에 대한 시의 관점이 규제 일변도에서 효율적인 관리로 전환돼 재정비를 바라보는 구의 기대가 높다. 구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재정비 결과에 따라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설문조사,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 대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선다.

김길성 구청장은 "완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남산과 더욱 어우러진 중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